광명시,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속도

사전 타당성 검토 보완 용역 완료
경기연 타당성 검토, 도 심의 거쳐
오는 2024년 상반기중 설립 목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달 31일 가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보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가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보완 용역'을 마치고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달 31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난 1월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원을 통한 체계적인 기업지원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ESG,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업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광명시 산업 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광명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사전협의와 지정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 예비검토 등을 마치고 10월부터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1월 행안부 기준 개정으로 타당성 검토를 중단하고 3월부터 보완 용역을 시행해왔다.

1월 개정된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인원은 최소 20명 이상, 사업비 비율은 5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 기준을 반영한 보완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오는 8월까지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경기도 2차 설립 협의 의뢰와 심의위원회, 조례 입법 및 심의 등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상반기 재단 출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과 관련, 지난해 10월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를 위한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보고,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시는 이번 사전 타당성 검토 보완 용역과 관련해 광명시의원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갖는 등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완 연구용역에 따르면 광명산업진흥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3대 목표로 삼고, 광명시 미래 도시 가치를 선도하는 지역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의 소임을 수행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기아자동차 중심의 제조업에 특화돼 있으나 향후 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으로 구조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고 광명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지원과 정부, 경기도의 산업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원규 기자

남양주시,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 운영

1·2청사에… 법률·금융 상담 병행
임차인·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도

남양주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6 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청사 주택과와 2청사 부동산관리과 등 2곳에 피해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 운영하는데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법률과 금융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 복지가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한 상담 체계를 마련했으며,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청 징수과 및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세무 창구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배너에 접속해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 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원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 뱃놀이 축제장 사전점검

전곡항·제부도 일대 9일부터 3일간
대규모 인파 대비 안전관리 등 지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오는 9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13회 화성뱃놀이 축제 행사와 관련해 전곡항과 제부도 일원 행사장 일대를 사전 점검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시장이 오는 9일 열리는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을 앞두고 현장 로드체킹에 나섰다.

1일 정 시장은 임종철 부시장과 관련 실과소, 읍면동 간부 공무원, 유관기관 등 50여 명과 함께 전곡항과 제부도 주요 도로, 행사장 일대를 점검했다.

특히 이들은 행사장 구성, 안전관리, 주차장 운영, 교통통제, 개막식 및 부대행사, 환경 정비 등 축제 방문 관람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각 분야를 꼼꼼히 살폈다.

정 시장은 "전국에서 찾아주시는 만큼 역동적이면서도 색다른 프로그램들로 기획했다"며 "보다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열리는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올해 야간 승선체험이 도입됐으며, 불꽃놀이와 드론쇼, 독살물고기잡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최순철 기자

의왕시, '원어민 화상외국어 학습 3기' 수강생 모집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오는 15일까지 15일간 '의왕시 원어민 화상외국어 학습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의왕시 원어민 화상외국어 학습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어와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매 기수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수별 3개월 과정으로 1년 총 4기로 운영되며 이번 3기는 다음달 3일 시작해 오는 9월 29일 마무리된다.

신청은 의왕시 거주 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자는 레벨테스트를 거쳐 원어민 강사와 1:1 또는 그룹을 구성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의왕시 화상외국어 수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이상범 기자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안양의 소리' 공개

안양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안양의 소리' 징글(Jingle)을 제작해 시정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징글'은 짧은 멜로디나 효과음 등으로 특정 브랜드를 연상케하는 청각마케팅 중 하나다.

'안양의 소리'는 2초 분량의 짧고 경쾌한 멜로디로 휘파람 소리를 활용해 밝고 활기찬 안양, 편안한 안양을 떠올리게 한다.

시는 1일 이 소리를 입한 안양시 VI 모션그래픽 2종을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또 시정 소식 '3분 안양' 등 다양한 미디어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시청 대표전화 통화 연결음과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야금, 피아노, 플룻 등 6가지 악기로 색다른 매력을 가진 '안양의 소리' 추가 제작을 마쳤다. 송경식 기자

"교통혼잡 개선"…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뭉쳤다

시민·운수업체 등 20여 명 참여
골드라인 혼잡률 해소 대책 자문

시민단체 및 시민, 운수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한 김포시 '2023년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모습. 기획단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교통혼잡률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기획단(이하 기획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시민단체와 시민, 관내 운수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골드라인 혼잡률 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이 이뤄졌다.

1일 시는 대중교통기획단 첫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 개화동로 버스전용차로 개통 및 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버스 수송 대책과 수요응답형버스(DRT) 추진현황, 2000번 노선 종점 단축,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조기투입 등을 밝혔다.

이에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대책과 관련해 버스가 48국도에 집중한 문제가 논의가 이뤄졌고, 아라대교 버스전용차로 활용방안 및 인근지역으로의 통행량 분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일부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배차시간 단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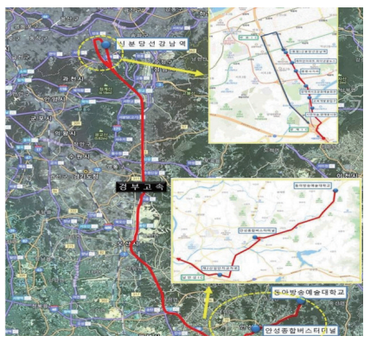
한편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70버스 운행이 되고 혼잡시간(6:30~8:30)대에 70버스를 분리(A,B)해 집중 투입하는 등 여기에 '출근급행버스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근 고촌읍 지역에 70 C, D 노선(24회)을 신규·추가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엄진섭 부시장은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한 이후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대내외적인 교통 여건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중교통기획단을 활용한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많은 자문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천용남 기자

안성시,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강남역 광역버스 신규노선 확정

김보라 시장 "서울 접근성 강화·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파주시가 교하중앙공원 시설 개선공사를 착공했다. 파주시 제공

안성시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출발해 강남역까지 오가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개설된다고 1일 밝혔다.

광역버스 신규 노선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노선선정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시는 그동안 안성종합버스터미널 및 동부권에 광역버스 운행을 요청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에 위치한 남안성IC를 통해 수도권으로 출퇴근 통행할 경우 버스 통행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어 안성시는 2023년 신규 노선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강남역 광역버스 노선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선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기점으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제2산업단지 및 남안성IC를 거쳐 강남역이 종점이며, 1일 8대(32회)로 배차간격은 25~50분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노선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2023년 6월 개통 예정인 한경대~양재 광역버스 노선과 더불어 금번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강남역 노선 신설로 우리시 동부권 등 광역교통 사각지대 교통민원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우 기자